

자체 브랜드 마케팅 통해 반도체 Laser Module 전문기업 성장

본사 이전계기 해외시장공략 박차

지난 3월 (주)레이닉스(대표 김광경 <http://www.lanics.com>)는 구로동의 디지털 산업 단지 내 우림 e-Biz Center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신 사옥으로의 이전은 단순한 공간적인 확장뿐만이 아니고 High Power Laser Module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고, 품질 개선을 위한 생산 설비의 확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일본 오사카의 JIAM SHOW 와 중국 상해의 CISMA SHOW

등 섬유 봉제 기기 전문 분야 전시회나 중국 북경의 광 전자 전시회 등을 참가하는 등 작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해외 시장 공략은 이로써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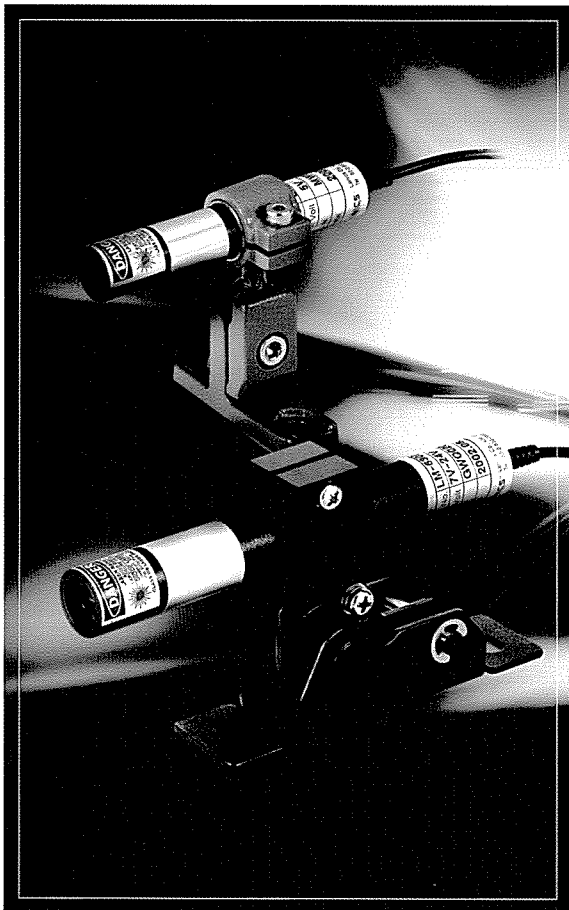
1996년 설립된 레이닉스는 LD, LED 등 광소자 전문 기업으로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특히 1998년부터 자체 개발 및 생산을 시작한 Laser Diode Module은 기존의 단순한 지시만을 해주는 Point 방식의 LD Module 뿐만 아니라 선형의 Line Generator도 생산하고 있다. 또한 LD Module은 Digital Modulation Type, Power 조정 Type(Laser 출력 조정)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파장(635 ~ 980 nm)과 출력(1 ~ 1000 mW)의 LD Module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개발이 완료 단계인 TE-Cooler 내장형 LD Module은 사용 여건이 열악한 산업 응용 분야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통한 마케팅 활동 전개

마케팅은 레이닉스 라는 자체 브랜드를 알리면서 크게 두 가지로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주요 전시회를 참가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www.lanics.com)를 이용하여 전자 상거래를 하는 온라인 마케팅 활동이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광관련 기업중 몇 안되는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이다.

전시회는 세계 3대 섬유 봉제 기기 전시회인 독일 쾰른의 IMB SHOW와 일본 최대 광전자 전시회인 InterOpto SHOW에 참가하고, 국내 전시회는 섬유 봉



제 기기 전시회인 SIMEX SHOW와 PHOTONICS KOREA SHOW로 예정되어 있다. 온라인 마케팅은 기존에 운용 중인 B2B 전자 상거래 홈페이지를 최근에 응용 분야 별로 보강하여 재 Open 하였으며, 이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 시킬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제품 특성상 소량 다품종이면서 개발 초기에 적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레이닉스의 의도이다. 이러한 마케팅으로 일본의 세계적인 봉제 기기 업체에는 최종 Sample이 제출되어 승인 단계에 있기도 하며, 미국과 중국,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문의가 오고 있으며, 모두 자체 브랜드로 나가고 있다.

High Power Laser 사업으로 수입대체 효과 기대
레이닉스는 올해 사업 목표는 크게 두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 하나는 기존의 산업용 LD Modul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High Power Laser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김광경 사장은 “첫 번째 LD Module은 현재까지는 주로 국내 고객 중심 위주로 개발되고 생산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외 고객 중심으로 개발 및 생산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인증을 획득한다든가 혹은 새로운 개념의 제품, 즉 선의 길이가 10 M 이상인 Line Generator나 AC 220V에서 동작하는 Module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레이닉스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High Power Laser 사업은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존의 Module의 개념을 벗어난 System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외부에서 인가해주는 전압이나 Signal에 의해 동작하는 단순 기능의 제품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Laser System은 TE Cooler가 내장되어 자체 온도 Control 기능과 외부의 Signal 없이도 출력이나 동작 시간 등이 Program

에 의해 조정되는 제품이다. 우선 10 ~ 40 W의 제품을 올해 안에 먼저 출시하고 100 W이상의 레이저를 계속해서 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레이저의 장점인 소형화가 가능하고 수명이 긴 장점을 이용한 레이저 System을 산업 분야의 Marking 장비나 생산 설비 등에 적용하게 되어 국내 산업 분야의 경쟁력 재고는 물론 수입 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이닉스는 척박한 산업 분야인 반도체 레이저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